

# 생존을 위한 변신, 식물의 놀라운 '위장술'

'본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꾸밈', 위장의 사전적 정의이다.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들은 적에게 들켜지 않기 위해 얼굴에 위장용 크립을 바르기도 하고 철모나 전투복을 나뭇잎으로 치장하기도 한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위장술은 많은 동물에게도 유용한 생존 수단이다. 천적의 눈을 피하고 먹이가 알아채지 못하게 접근하기 위해 많은 동물은 보호색과 무늬를 띄고 태어나기도 하고, 나무와 잎, 그리고 돌맹이 등 주변 사물의 색과 형태로 몸을 바꾸어 다른 사물에 자기 모습을 숨기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들의 위장은 널리 알려졌지만, 주변 사물과 구분되지 않는 절묘한 위장을 하는 식물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 주변의 색깔로 위장하는 식물들이 발견돼 관심을 끈다.

1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영국 엑서터대학교와 중국과 학원 산하 쿤밍식물원의 공동 연구팀은 중국 남서부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의 위장술을 연구했다. 사실 식물은 다른 사물로 위장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 때문에 잎이 녹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식물의 성장에 최적화된 잎과 줄기의 모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식물이 돌맹이 같은 다른 사물로 위장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지역에 바위틈에 살아가는 작은 식물들은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다양한 바위와 돌맹이와 같은 색으로 자신을 숨긴다. 작은 크기와 완벽한 색상 모방은 굵주린 초식동물의 눈에서 이들을 최대한 숨겨줄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지역에서 15과(科)에 걸친 다양한 식물의



▲ 주변 환경에 따라 위장한 코리달리스 헤미디센트라

위장술을 조사해 학술지 '생태학과 진화 동향'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에 발표했다.

식물이 다른 색으로 위장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종의 식물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인지하고 그 색상으로 자신을 위장한다는 사실이다.

연구팀이 소개한 코리달리스 헤미디센트라(Corydalis hemidicentra)의 경우 몇 가지 색소를 섞어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인지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산악 지대에서 이런 작은 식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별한 위장술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식물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평화롭고 정적인 생물체로 생각된다. 하지만 식충식물처럼 다른 식물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도 독특한 방법으로 생존하는 식물도 많다. 자연계에서 사는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위장 식물 역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생존자들이다.

Beauty Land  
**뷰티랜드**  
미용실

**Grand Opening Special**

남자 헤어컷 \$8

Mon-Fri 10am-7pm Sat 10am-6pm  
예약&문의 **562.393.0621**  
2530 W Whittier Blvd. #1, La Habra, CA 90631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복사기 무료

B&W  
1달 Rent  
\$75~

Color  
1달 Rent  
\$100~

1. Print, FAX, Com 무료설치  
2. 서비스 Part, Toner 무료  
3. 당일 출동 서비스

www.fbmcopiers.com  
**800.582.3321 • 562.802.9044**  
13203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Blossom

## Hair Salon

## Grand Opening

첫방문시 10% off

Text, kakao talk(grandcross88) 예약가능

Tel. 714.228.9001

Cell. 562.405.6696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